

美군수산업의 새로운 변화



崔 然 鴻 위싱턴大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정치학, 행정학 박사



국방과학기술이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헌신, 연구·개발에 몰두한다면 미래에는 한국도 자체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의 과학·기술에 한계를 느낀다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 공동연구·개발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시도할 때마다 공동연구·개발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유럽의 나라로부터 무기구입을 시도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연두교서에 서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방비와 다른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4년동안 880억불의 국방비를 삭감하며, 현재의 180만 병력을 1997년까지 140만 병력으로 줄이는 병력축소와 함께 군비축소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의 B-1과 B-52 H 폭격기 편대를 절반으로 줄이고, 차세대 장갑차 생산을 완전 중지하며, 57척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밀스타(milstar) 전투 커뮤니케이션 위성체계를 마감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블랙호크(Black Hawk) 헬기, 코만치 스카우트 헬기, 다발사 로켓트 체계, 새로운 AFAS 곡사포, 장갑차, 화약무기체계 등이 사라지게 되고, 해군의 경우 21척의 낡은 함선과 핵잠수함을 퇴역시키며, A-6 공격용 제트기를 은퇴시킵니다.

공군은 현재 26.5 전투비행대를 24 비행대로 줄이고, 매 비행대가 72대의 전투기로 구성되도록 하고, C-17 화물 수송기를 비롯해, F-16과 밀스타 인공위성 구입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발전 계획은 국방부와



공중 발사되는 MR-UAV 2기를 탑재하고 비행하는 F/A-18 전투기

군수산업을 위축시킬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부와 군수산업은 클린턴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더 적은 국방비로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유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미국인들과, 긍정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인들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군수산업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기구와 행정 경영의 축소를 단행하거나, 아니면 기업과 기업의 합병/연합을 통하여 그들 기업의 주가(株価)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미국은 젊은 대통령의 정책을 수용하며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중요한 기업인 그루만(Grumman)사는 7개월 전에 F-14를 제작한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방비 삭감,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될 삭감계획이 방위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위산업의 구매자인 국방부는 1985년이후 실제 구매액을 1,270억불에서 540억불로 줄였고 클린턴 대통령의 예산정책이 방위산업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루만과 같은 방위산업체는 많은 직원을 해고 시켰고, 자본투자를 삭감시키면서 외국에서의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의 대차대조표는 하향적 이라기보다 상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경제 전반이 하향적이고 비관적이지만, 방위산업체들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골드만 삭스투자연구회사의 주디스 볼링저 부사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링저 부사장은 앞으로 5년간 방위산업체들은 오히려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주식은 1992년 4.5%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네럴 다이내믹스사(社)는 93%, 록히드사는 26%, 레이테온사는 23%, 마틴 마리에타사는 1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몇개의 방위산업체들은 앞으로 2,3년 안에 도산할 것이며, 현재 1985년 이후 259개의 방위산업체들이 경쟁회사들에 합병, 흡수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브즈알렌/해밀턴 사의 분석가들은 100대 방산기업체들 가운데 75개 내지 80개가 2000년대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7개의 회사들

중 3개 내지 4개사는 사라질 것이고, 잠수함을 생산하는 2개 회사중 하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B-2폭격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노드롭(Northrop)과 같은 전략무기 제작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정밀화약, 전자, 항공, 커뮤니케이션 분야 회사들은 미래 전망이 밝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록크웰, 마틴 마리에타, 휴즈, 로탈과 같은 회사들의 전망은 밝은데, 그들은 현재 갖고 있는 비행기, 전투기, 함선, 전차를 현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비의 삭감, 군수산업의 위축은 국방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드롭사의 캔트크레스 사장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방향에 적응한다면 국방력의 손상은 없을 것이고, 적정의군 편제를 계획하고 집행한다면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군수산업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규모 축소

맥도널 더글라스사에 이어 규모가 큰 제네럴 다이내믹스사의 윌리엄 안더스 사장은 규모축소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美 항공우주국의 시험조종사였으며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였는데 전술 전투기 제작회사를 30억불에 팔아버리고, 다른 제네럴 다이내믹스사 주식을 10억불어치 사들였습니다.

그후 그의 회사주식은 25불에서 110불로 뛰었는데 그는 모든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간접자본투자를 절약하는 것을 강조하고, F-22 전략전투기, 차세대 전투기 제작회사를 록히드와 제네럴 다이내믹스에 팔아 기업의 간접비를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1993년 3월 1일 제네럴 다이내믹스사는 록히드사에 스텔스, 레이더를 피해 비행하는 F-22 전투기와 F-16 전투기 생산을 15억불에 넘겼습니다.

M1 Abrams를 성능 개량한 M1A2 전차. 장갑 보강, 사격통제장치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제네럴 다이내믹스는 지난해 쉘스나(소형 비행기)회사를 텍스트론사에, 컴퓨터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사에, 미사일 공장을 휴즈 항공사에 전자회사를 칼라일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그때마다 제네럴 다이내믹스사의 주식가는 상승했습니다.

이와같이 합병은 방위산업관련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돕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 노드롭사는 연구·개발 경비를 6.7%에서 1.8%로 줄였습니다.

제네럴 다이내믹스사의 경우 3.5퍼센트로부터 2.6퍼센트로 줄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비를 삭감할때면 우선 연구·개발 예산을 먼저 희생시키게 됩니다.

90%의 이익이 생산공정에서 나오지만 연구·개발이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리게 하는데, 어떻게 연구·개발을 살리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기업의 연합/합병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연구·개발의 집중화, 연구·개발의 중복과 간접투자비를 줄이게 되어 오히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연합/합병은 기업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기업을 크게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합병을 당하는 회사쪽에서 보면 그 기업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합병을 하는 회사쪽에서 보면 간접자본투자를 줄이며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규모는 합병전보다 커집니다. 시장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기업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 로탈사는 6개의 하이테크 군사 전자회사를 사들였는데, 그 중에 포드 항공과 LTV의 미사일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마틴 마리에타사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항공회사를 사들였는데 그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0억불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틴 마리에타사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연구·개발을 장악할수 있었고, 이 매매과정에서

제네럴 일렉트릭사는 10억불 상당의 마틴 마리에타사 주식을 구입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위산업체를 사들이는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틴 마리에타사의 노만 아그스틴 사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역사는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해석하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쟁은 완전히 사라질수 없으며, 따라서 언젠가 벌어질 미래의 전쟁을 위해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국방예산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으로 완만한 성장의 기업이익을 추구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스엔젤레스의 제네럴 모터스 휴즈 전자회사는 제네럴 모터스(자동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유일한 미사일 제조회사를 지난해 제네럴 다이내믹스사로부터 4,500만불을 들여 인수하여 4개의 공장과 합병하였습니다.

미사일 생산의 경우 합병없이는 미래를 내다볼수 없다고 휴즈사의 마이클 암스통은 말합니다. 발사대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이 필수적이고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적으로 쓸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합병불가피론을 주장합니다.

최근 작은 전자회사와 항공사간의 합병을 위한 협상이 활발합니다.

국방부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지원하기보다 현재의 무기를 현대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웨이브(microwave)와 라디오 주파의 부품들은 레이테온사, 로탈사, 휴즈사가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품회사들은 큰 회사들에 의하여 합병의 기회를 갖고 있으며, 통신장비회사인 시그날(Signal)사의 경우 지난 3년동안 400만불에서 900만불로 매상이 올랐습니다.

유통성/신축성있는 생산 전환과 민간화

전차 공장이 트랙터 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예로 클린턴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군수산업이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평화시대의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 안에서 「전환」이란 말은 생산과정을 융통성있는 기계, 설비를 가동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던 조립장에서 2개의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국방부가 제네럴 다이내믹스사에게 8,000대의 전차와 2,000대이상의 F-16을 주문했던 시대는 일단 막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맥도널 더글라스사에서 1,000대의 F-15을 구입했던 시대도 지나갔으며, 레스 아스핀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슈퍼 하이테크(Super High Tech) 무기를 구입해도 다량이 아니라 소량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공군은 전략전투기 주문을 1,000대로부터 700대로 이미 하향 조정했으며, 1997년에는 500대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방위산업체는 지금부터라도 국방부가 정확하게 실수요량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0대를 주문했다가 10대로 줄어들면 축소적응의 문제가 심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공정은 기본적으로 융통성/신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00대 제작으로부터 10대 축소 제작을 수용할수 있는 생산공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레이건의 국방력 강화시대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군수산업은 대량생산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축소지향의 생산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상용 컴퓨터 칩은 그들의 회로 디자인 변경으로 다양하게, 그러나 주문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방사선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군사용 칩은 전혀 신축성이 없는 제작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나의 모형으로부터 다른 모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듯 한 군사적 용도에서 다른

군사적 용도로의 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사가 융통성있는 생산과정으로 이미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실험이 고무적이었는데, 100% 단일 웨이퍼 과정(Simple Wafer Processing)이 군사적 칩이나 민간 상업적 칩을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낼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회계과정도 생산과정에 따라 융통성과 신축성있는 제도로 전환될 것입니다.

군수산업의 민수산업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10대 방위산업체의 민수제품 생산능력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루만 회사가 알루미늄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카만 항공제작사가 기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산의 다양화가 회사의 생존방법입니다.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은 크게 다를바 없고, 기업운영은 어느 산업이나 똑같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생산의 다양화, 기업의 다양화를 추구해 온 것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사가 전기제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10대 방위산업체 가운데 하나이고, 웨스팅하우스가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큰 방위산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 모두 방위산업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록히드사와 제네럴 다이내믹스사는 방위산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민수산업체의 이미지는 약합니다.

맥도널 더글라스사, 보잉사, 마틴 마리에타사 등 모두 하이테크 산업의 민수화, 상업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마리에타사는 우편물 분류기계, 환경로보틱스, 건축자재 회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마틴 마리에타사는 채석장을 사들여 돌을 캐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클린턴 정부가 경제부흥책으로 사회간접투자확대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투신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량, 댐, 주택건설이 클린턴 경제의 부양책이기 때문에 마틴 마리에타사는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용 항공기 생산은 199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7% 하락하였는데, 민간 항공기 생산은 17% 증가했습니다.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존 맥도널 사장은 민간 항공기 회사로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경제가 활성화되면 민간항공산업의 확장이 기대되며, 한국도 이미 세계적 항공생산국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민간항공기 판매의 40퍼센트, 20억불 상당을 대만에 수출했습니다.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계속해서 해외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고, 그들의 자회사를 매각하려 합니다.

1997년에 마지막 B-2 폭격기를 제작하게 되는 노드롭사는 이제 軍으로부터 民으로 경제추세가 전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이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텔레비전, VCR은 군수산업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민수 상품입니다. 군화, 군복을 만드는 회사들은 민간인 신발이나 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휴즈항공사는 생산과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해 왔고 성공한 편입니다. 초기에 휴즈사는 인공위성 전량을 정부에 납품했었으

나 지금은 정부납품과 민간사업이 절반씩 차지합니다.

이 회사는 상품의 다양화, 시장의 다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룩한 회사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를 추구할수는 없고, 성공할수도 없습니다.

휴즈사는 HS601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예정인데, 이 위성은 텔레비전 100개~150개의 채널을 방송할수 있는 18인치 위성접시를 미국 어디에 두고라도 가능케 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이 회사는 5억불을 이 직접방송 서비스에 투자하여 케이블 TV와 경쟁하려 합니다.

휴즈사는 새로운 상품개발에 성공한만큼 시장개척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시장개척에 집중적인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300억불 매출을 올리는 에섹스사는 군수항공부품 회사인데 최근에 신축성/융통성 있는 생산공정을 만들어내 하루는 F-15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이튿날엔 연료체계 부품을 만들어내며, 그 다음날에 의료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exas Instruments社에서 생산하는 대공무기체계(LAV-AD)



어떻게 보면 전문화, 분업화를 거부하고 다원적인 생산·경영을 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시장으로의 발돋움

국방부의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방위산업체는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110 소련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쌓아놓은 무기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하이테크 무기 판매, 최선의 서비스, 충분한 부품 공급으로 세계 어느나라보다 해외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美 의회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리차드 그리셋트 분석관은 1990년 이후 미국이 후진국 무기판매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에 이르면 미국 무기 생산의 15% 내지 25%가 해외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첨단무기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 라는 의문에 로랄사의 버나드 슈바르츠 회장은 『주권국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자연인이 양식, 공기, 성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외국이 미국의 F-15을 사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영국의 토네이도(Tornados)를 대신 사들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록크웰의 군수전자제품 해외판매는 5년전 5%에서 현재는 20%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해외시장이 새로운 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의 우방국인 프랑스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50억불의 군수물자를 팔았는데 이라크는 그 무기로 프랑스를 대적해 싸웠습니다.

미국은 아직 프랑스가 당했던 문제에 부딪치고 있진 않지만 그 가능성은 어느 때엔가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엔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해외 무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한 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올해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72대의 F-15을 팔았고, 지난해 대만에 150대의 F-16을 판매하였으며, 쿠웨이트에 256대의 M1A2 전차를 팔았습니다. 이 숫자는 기록적이며, 내년에도 해외판매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시장의 질서를 장악하고 있고, 계속 장악하리라고 봅니다.

정치와 군수산업

레스 아스핀 국방장관은 공군의 28억불 예산삭감을 촉구했고 새로운 F-16 구입을 중단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록히드사는 15억불을 투자해 제네럴 다이내믹스사의 현 전투기 제작회사를 사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24대의 F-16을 매년 2000년까지 구입하리라는 기대감과 외국으로부터의 주문기대감 때문이었고 부품주문이 계속 유지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보다도 아스핀 국방장관이 텍사스 주 출신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로부터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으리라고 본 정치적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출신 선거구에 경제적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텍사스 경제가 피폐해진다는 사실이 아스핀 장관에게도 압력요인이 되어 卹의 소득, 실업률이 정치적 요인이 되며 4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텍사스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도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F-16 생산중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맥도넬 더글라스사의 F/A-18과의 경쟁심리도 또한 정치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제네럴 다이내믹스사가 생산해온 M-1 전차와 시울프(Seawolf) 잠수함도 국방부가 포기하려 했지만 정치적 반대 압력이 너무 커서 모호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샘 닐 상원 국방분과위원장도 F-16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치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F-16은 걸프 전쟁중에 오히려 인기를 잃었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샘 닐 상원위원장은 다만 F-16의 모형변경으로 록히드사를 구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형변경은 하나의 협상도구일 뿐입니다.

정치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美군수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텍사스주가 갖고 있는 군수산업의 위치를 이해할수 있다면 미국정치의 위력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州)는 하나의 압력단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주들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연방정부의 예산이 그들 주에 할당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맺는 말

미국의 군수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분별이 오히려 모호해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 군수산업의 네번째 고객임을 알고, 淸美 통상회의에서 오히려 공격적일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을 개방하라고 아우성이지만 미국의 淸 한국 서비스 분야, 일방적 군사 무기 수출은 미국의 무역흑자를 크게 증폭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구입을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필요한 무기를 한국인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국민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이 산업체와 대학, 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되어 헌신, 연구·개발에 몰두한다면 미래에는 한국도 자체무기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한국 내의 과학·기술에 한계를 느낀다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 공동연구·개발 기회를 창출해야 합니다.



시코르스키사가 개발한 블랙 호크 헬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시도할때 마다 공동연구·개발을 반드시 동반해야 하고, 프랑스 영국이나 다른 유럽의 나라로부터 무기구입을 시도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한나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은 또한 미국, 유럽의 나라들과 과학기술협정에 조인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정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과학 한국의 발전은 한국의 자체 방어력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외무장관, 국방장관, 과거 처장관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미국의 군수산업과 비교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마지못해」 군수산업에 관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업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